野, 수도권 전패 위기감 속 바람몰이 총력전

與, 과반 확보 목표…‘지역참일꾼론’ 내세워

■ 7·30재보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는 7·30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 등이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 : //party.nec.go.kr)에서 공개된다. 오는 25(금)~26일(토)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모든 당력을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다.

◇與 “과반 확보 제일 중요” ‘지역일꾼론’ 전면에=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안전한 원내 과반수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선거까지는 모든 결정을 미루고 오직 그 일에만 매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147석으로 원내 절대 과반의석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만큼 적어도 4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둬 야당에 대해 수적 우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법안처리 여건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대표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수원에서 개최했다. 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격전지’ 경기도에서 필승의 의지를 다진 김 대표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도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경기 김포의 홍철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지역 참일꾼론을 앞세워 국정안정론에 힘을 보태고, 국가적 과제인 국가혁신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野, 수도권 전패 위기감 속 바람몰이 총력전=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지키기에 초비상이 걸렸다. 공천갈등의 후폭풍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6곳 중 경기 평택을 제외한 5곳에서 패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도권 전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도 낙마하자 박근혜정부의 ‘인사참극’과 ‘불통정치’를 전면에 부각, ‘세월호 심판론’의 판을 키워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6일 각각 수원과 서울 동작을(乙)에서 수도권 공략을 지휘한다.

김 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수원을(권선) 백혜련, 수원정(영통) 박광온, 수원병(팔달) 손학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했다. 수원 ‘3각 벨트’의 출정식을 같은 날 개최, 바람몰이에 나섬으로써 손 후보를 축으로 하고 양 옆에 정치신인을 배치한 ‘삼각편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동작을 기동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참석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에는 동작을에서 의원총회도 소집해뒀다. 안 대표는 선거기간 동작을과 수원을 오가며 수도권 선거에 ‘올인’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누구와 먼저 악수할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처리 담판 회동’에서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 정성근 자진사퇴 급선회 배경

더 이상 여론 악화 국정운영에 부담

野 “여자문제 의혹 제보 있다” 경고

청와대의 임명강행 의지에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전격적으로 자진사퇴한 것은 악화된 여론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국정에 주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에 청문회 위증, 청문회 후 ‘폭탄주’ 회식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왔다. 여권내에서도 그에 대한 ‘불가론’이 커지는 기류였다. 여론 악화에 따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 후보자 2명은 ‘하차’ 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던게 주말을 거치면서 형성된 흐름이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끝나자 다음날 김명수 후보자는 지명 철회한 반면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는 16일 오전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드렸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당과의 ‘대화정치’ 복원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는데다 7·30 재보선에서도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야당이 추가 폭로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돈 것도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한 이유로 거론된다.

야당 측에 접수된 제보는 ‘여자 문제’에 관한 의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측은 전날 오후 새누리당 교문위원에게 이러한 의혹을 전하면서 “빨리 사퇴시키라”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한 의원실에 정 후보자의 10여년전 ‘여자문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해당 의원실이 해당 여성 어머니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세월호 특별법’ 담판 실패

수사권 부여 등 이견 못좁혀…2차 협상 나설 듯

새정치 ‘새 대한민국委’ 설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여야 지도부는 간사협의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밤늦게라도 2차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차 회동에는 여야 대표 외에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재원 김영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참석,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조사위원회 구성방안 등의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달내에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해 안전문제는 물론 권력과 자본독점 등의 사회적 병폐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오 “이렇게 인사 안돼… 靑에 바른말 해달라”

새누리당 새 지도부에 당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6일 최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논란과 관련,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면 안 해야죠”라면서 당 지도부의 의견을 청와대에 공식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자 대표적 비주류인 이 의원은 이날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통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강행 의지를 내비친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의 당 지도부의 바른 소리를 청와대에 공식 전달해야 한다”면서 “‘그 분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당이 판단한다. 다른 인물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도부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평창올림픽·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 위원장 박주선 의원 선출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여야 구분없이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이에리사,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이 계속 맡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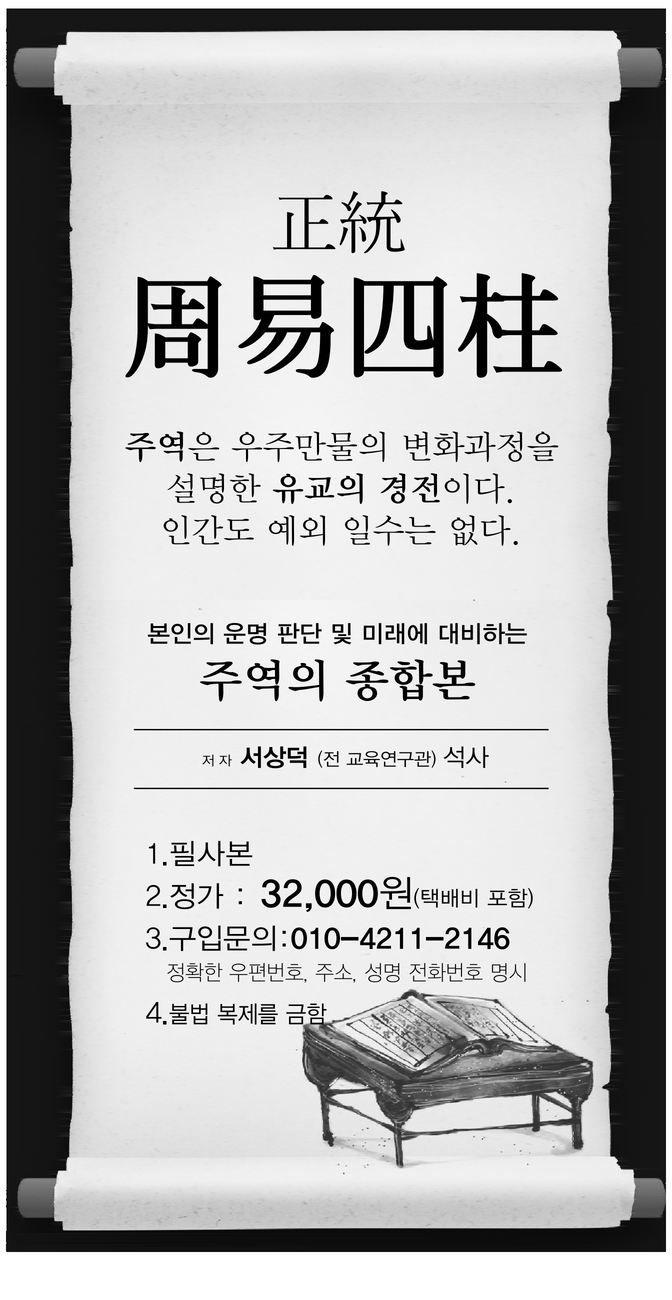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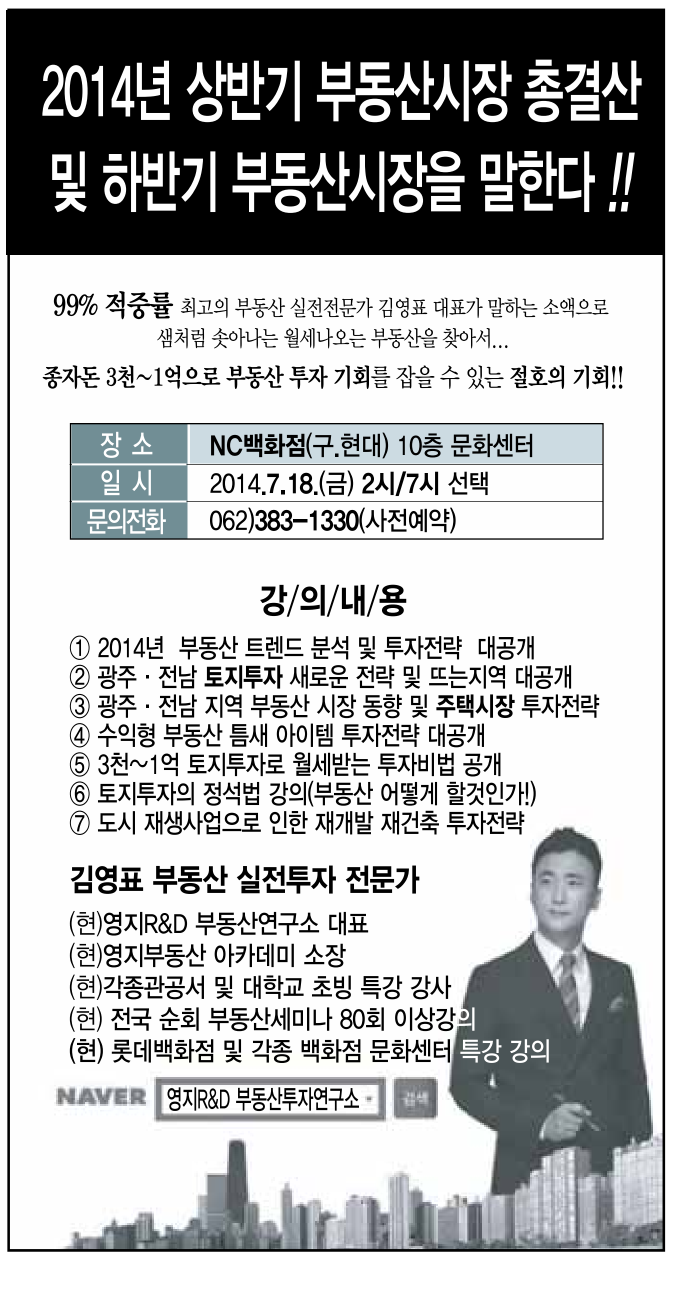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의원 4명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16일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시비에 휘말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는 홍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장하나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이장우 의원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김일성 주의’ 발언으로,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친 전철’ 발언과 ‘대선 불복’ 발언으로 각각 징계안이 제출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